

글로벌 관광 Biz (주)매경관광

중구 서소문 중앙일보 맞은 편 건물 7층에 자리잡고 있는 20여평 남짓한 아담한 사무실. 10여명이 근무하기에는 약간 비좁은 듯 하였으나 전화 받고, Fax보내고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무실의 넓고 좁은 공간개념이 잊혀진다. 수없이 많은 입, 출국수속 관련 서류들을 민첩하게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은 선진 관광국가가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게 한다.

대한통운 관광사업부에서 10여년 근무한 경험을 살려 창업한지 어언 20여년, 국내 관광여행사의 선두진입을 목표로 전 세계 관광지를 네트워크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출장항공권을 비롯해 관광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방영혁 사장은 오늘도 전 직원과 같이 '매경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연수는 물론 전세계 각종 전시회 참관업무를 대행하고, 출장 및 친지방문을 위한 개별항공권 판매, 전 세계 해외직영 호텔예약,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신규 상품을 개발하여 어느 지역이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이사 방영혁
주식회사 엠엔티
02-734-8700
www.nkttou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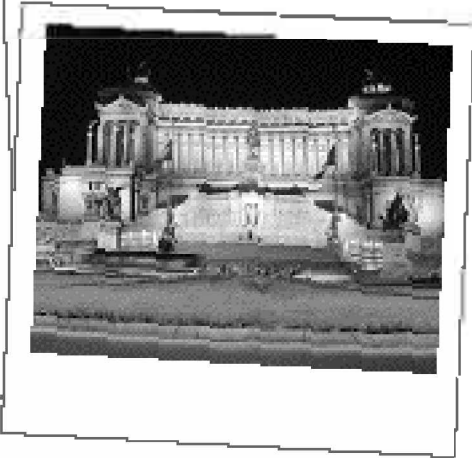
최근 여행업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연이은 주식시장의 상

장으로 여행사가 대형화할 추세이고, 또 여행사들간 경쟁이 더욱더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외국의 글로벌 여행사들도 국내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여행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방사장은 말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과거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낀 방사장은 관광산업도 여타 중소기업처럼 경영환경이 미래예측적인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스스로 혁신하고 돌출환경



에서도 상대를 공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경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동업종에서 최고의 경영을 하고자 방사장은 다음과 같은 4개의 경영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먼저 속도감있는 경영을 한다. 속도는 성장의 거센 원동력이다. 시장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회사로 키워가는 것이 현재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

둘째, 자율경영체제를 갖는다. 임직원들 스스로가 회사목표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장이 사원들 각자를 믿어주면 누구나 일을 더욱 더 잘하게 된다며 아무리 작은 기업을 경영해도 일을 잘 맡길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만이 당찬 회사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셋째, 창조적 경영을 유지한다. 내실있는 경영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다.

넷째, 글로벌 마인드정신을 향유한다. 대한민국의 산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일한다.

위와 같은 방사장의 4가지 경영방침아래 '매경관광' 임직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관광지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관광의 국내유치를 위한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관광수요창출에도 최선을 다하여, '매경관광' 만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 세계 사회복지,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앞장서 찾아 나서는데 헌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방사장의 결의는 사뭇 경의롭다. 다가오는 대구세계육상, 인천 아시안게임, 여수엑스포 등 커다란 국제행사를 앞두고 이러한 국제관광사들의 눈부신 활동이 동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루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표준 2008. 2